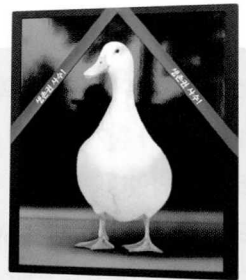




## 가금업계 말살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을 규탄하라! SI 관련 전국 가금업계 집회 개최

- ▶ 안 그래도 힘든 가금업계에 죽어라 칼 쥐어준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에 항의 및 사죄 요구
- ▶ 전국 각지의 오리, 닭, 계란 업계 총 800여명의 농가 집회 참여  
: 본회 김만섭 회장을 비롯해 180여명이 넘는 오리업계관계자, 결연한 의지로 집회 참여
- ▶ 한 양계업 농민, SI로 인한 생계위협에 집회 도중 음독 자살 시도
- ▶ 온 가금업계가 하나되어 금번 SI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 요청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 가금업계가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육농가는 오리·닭을 키워도

출하할 곳이 없거나 마지못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도축장에서는 판로가 끊겨 날로 체화물량이 쌓여가는 데다, 요식업체는 고객 발길이 끊





▶ 살병 없이 펼쳐진 전회 인발



▶ 수의를 입고 결연하게 앉은 본회 김만섭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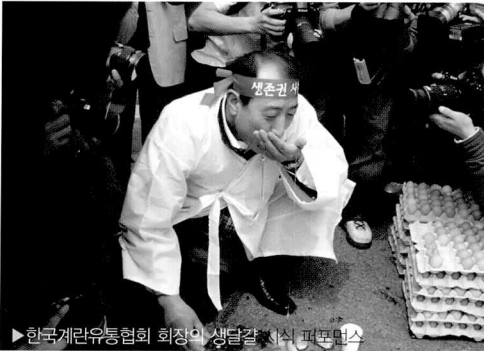
▶ 죽어가는 오리&닭 산업을 살리자는 제사 퍼포먼스



▶ 죽어가는 오리&닭 산업을 살리자는 제사 퍼포먼스



▶ 풍물패 공연



▶ 한국계란유통협회 회장의 생달걀 (신 퍼포먼스)



▶ 본회 회원이 오리고기를 뜯어 먹 퍼포먼스를 하였다.



▶ 본회 김만섭 회장 연설문 낭독



▶ 죽어가는 업계를 살려내라! 피켓팅 가금업계 종사자들의 합성

겨 폐업 직전 상황까지 이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었던 조 모 사병의 폐렴증상을 AI 의심환자로 분류하여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모든 언론에 전면 공개하고,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감기증상도 AI 의심사례라며 바로 신고할 것을 종용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지난 9일 언론보도를 통해 AI 대유행시 환자 900만명, 사망자 5만명이 예측되는 대대적 전염병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현 불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전염병 창궐에 대한 불안감

에 떨게 만들고, 가금산업 관계자들을 일순간 살인자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감염축만이 아닌 가금육 전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조리·판매행위에 대해 금지하라는 지시를 전국 시·청에 하달함으로써 마치 가금류 소비 말살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만들었다.

이에 본회를 비롯한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가금관련단체들과 회원을 중심으로 지난 5.16(금)일, 질병관리본부 정문 앞에서 산업관련자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김만섭 회장은 AI 집회관련 경과보고를 통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유



▶ 죽어가는 업계를 살려내려 파궤한 가금업체 중시자들의 합성

▶ 산 요리를 만든 채 구호 연호중인 황만영 회장

▶ 진회참여농민 경찰의 줄을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허위정보로

를 설명하였으며, 김만섭 회장은 또한 가금단체 대표 연설회에서 “기름값, 사료값은 하루가 다르게 무서울 만큼 올라가고, AI 발생 전 대비 90% 이상 소비가 떨어져 연쇄부도까지 우려되는 이 시점에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말을 절감한다.”며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업계에 확인도 안 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금업계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은 예방약 구매 예산증액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일반감기 환자도 지체말고 AI 의심신고 하라, 조류 근처는 얼씬도 말라, 학교도 휴교하라 하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면 가금류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 종사자들부터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 국무총리는 열심히 가금육 홍보하는데 정부기관인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조류 근처만 가도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니 무슨 정부체계가 이렇게 모순되는 곳이 어디 있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집회에서 각 가금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직접 사죄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찾아 면담을 하는 도중 본부 밖에서 양계업을 하는 김 모(53)씨가 독극물인 제초제를 음독 후 자신의 몸에 뿌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표단이 협상도중 뛰쳐나오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격앙된 농민들이 질병관리본부 내로 진입하려 하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제초제(除草劑)를 음독한 김 모씨는 다행히 즉시 병원으로 후송,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대표단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약 1시간 여의 토론을 거친 끝에 이종구 본부장으로부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종구 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TV 및 주요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AI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하고, 이후 TV 토론회를 제안하여 국내 가금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알려가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